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6 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2007년 11월 26일 ~ 12월 8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 268, -, - (영 523, 341, 723, 719)

성경: 빌립보서 4:4-7, 마태복음 5:1-7,29

빌립보서 4:4-7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5:1-7, 29

-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 2.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 3. 영(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6.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할(배부를) 것임이요
-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29.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6 주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빌립보서 4:4

-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데살로니가전서 5:16

- 16. 항상 기뻐하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람이란 모두 기쁨을 좋아하고 근심을 싫어한다. 사람이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무거운 것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기뻐할 수 없다. ...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의 짐이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염려의 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기뻐할 수 없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 안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분깃이 아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태도를 갖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여야 한다. 성경을 읽는다면, 믿는 이들이 기쁨 안에서 살고 염려가 없어야 함을 발견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보기로 하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바를 하나도 명령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모두 사람이 능히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이런 저런 문제를 갖고 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노동자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나는 일로 힘들고 지쳤으며, 많은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데 생활비는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당신은 걱정을 하

게 될 것이다. 아마 당신은 홀어머니나 과부일지도 모른다. 많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낮은 수입을 갖고 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당신이 학생이거나, 의사거나, 주인이거나 혹은 종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산다는 것을 매우 힘들게 느낄지도 모른다. 당신은 기뻐할 수 없다. 실로, 많은 일들이 당신을 기뻐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4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다.

남편을 잃은지 얼마되지 않은 한 과부가, 그녀의 소유를 저당잡히게 되었고 집주인은 집에서 그녀를 내 보내려고 할 때, 이런 환경에 처한 그녀는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갓난 아기와 놀아 줄 수 있다. 그녀는 집이나 죽은 남편이나 혹은 주변의 환경으로 기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 있다. 그녀는 아기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서 혹은 어떤 종류의 행복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오해하며,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지만, 아무도 우리에게서 하늘에 속한 것을 가릴 수 없다.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바울을 감옥에 넣고 잠궤 버렸지만,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그에게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한 가지에 대하여 분명해야 한다. 「환경 안에서 기뻐하지 말라, 다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친구나 친척들이 멀리 있고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잘 잊어버린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이면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왜 바울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연이어 말한 이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하간 기뻐해야 한다. (위치만 니 전집, 제1집, 제18권, 제3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19-21쪽)

**빌립보서 4:5**

5.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태복음 28:18上, 20下**

18. ...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  
20. ...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원문에 중용지도(中庸之度)-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나치지도 않고 이르지 않음이 없음-의 사상으로 나와 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약간의 일을 당하고도 태산에 놀리는 것 같다면 중용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어려움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즐거움은 큰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생활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중용지도-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지도가 아닌-인 것이다.

5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한다. 이 말은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원문에서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에베소서 2장 13절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와 17절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의 「가까와 졌느니라」나, 「가까운 데 있는」과 빌립보서 4장 5절의 「가까우시니라」는 원문에서 모두 동일한 단어이다. 그 뜻은 원근(遠斤)의 「근(斤)」으로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며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同 21~22쪽)

**☞ ☞ ☞ ☞ ☞ 수요일 ☞ ☞ ☞ ☞ ☞**

**빌립보서 4:6**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

## 📖 마태복음 6:25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매일 염려할 수 밖에 없는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반절에서는 마땅히 기뻐하라고 했고 하반절에서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또한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염려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 어떤 염려에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문제나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어려움 등을 염려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어떤 염려든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염려해야 하고 저것도 염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염려하는 것을 그의 본분으로 여긴다. 그렇지 않으며, 『다른 모든 것은 염려하지 않더라도 그 한 가지 일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마 한 가지 염려도 있어서는 안 되는가?』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한 가지 염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염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당신이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同 22쪽)

☞ ☞ ☞ ☞ ☞ 목요일 20 20 20 20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빌립보서 4:6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데살로니가전서 5:18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출구임

6절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다.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는가? 「오직!」 오직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앉아서나 누워서나 걸으면서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첫째는 기도이다. 이것은 보통 기도이다. 둘째는 간구이다. 당신의 마음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뢰는 것이다. 세째는 감사이다. 감사함으로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당신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로 아뢰야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이와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고 기쁨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일을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이 손에 놓을 수 있다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첫번째 일을 당신의 신상에 두고, 두번째 세번째 일이 와도 당신의 신상에 놓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놀림을 받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된다. 나는 일찌기 집을 짓는 일꾼들이 벽돌을 지붕까지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세 사람이 나무 사다리의 상 중 하 부분에 서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벽돌을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멈추지 않고 보내는 것이었다. 만약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벽돌을 다시 위로 보내지 않거나, 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벽돌을 받지 않는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오는 벽돌의 압력에 의해 눌러 죽게 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염려를 모두 하나님에게 보내어 지우지 않는다면 염려가 우리를 압사시킬 것이다. 염려가 계속 우리를 누르게 해서 안 된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에게 놓아야 한다. 언제든지 당신에게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하나 인내하며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출로(出路)가 있다. 이 출로는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이다.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

인이 능히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리이다. 큰 일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 염려할 만한 모든 일과 염려할 기회가 있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는 까닭은 천성이 낙천적이기 때문이 아니요, 바보처럼 모든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뢰 사람이 있고 믿고 위탁할 사람이 있고 책임져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기도가 우리의 출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로이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족한가? 부족하다. 성경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못 박힌 손이 우리 손 안에 놓으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일찌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얻어지는 바가 있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즐거울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이 좋다고 보는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지 않다고 보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同 22~24쪽)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빌립보서 4:7**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베드로전서 5:7**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평강을 체험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그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그분은 우리

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염려를 담당하시므로 당신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염려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염려를 그분에게 놓으라고 하셨다. 그분에게는 결코 어려움이 없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자기의 몸을 염려하거나 가정과 사업을 염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문제를 염려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염려를 그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셨음과 그분이 오늘 당신의 염려를 담당하기를 원하심을 알아야 한다. 부서진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고통스런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이제 당신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당신이 만약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당신의 마음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다면 가장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한다. 『지키시리라』 . 이 단어는 원문에서 군사 용어로서, 「경계(警戒)」 혹은 「순찰」 과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의,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에서의 「지키다」 는 여기의 「지키다(保存)」 과 같은 단어이다. 당시에 다메섹의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병사를 사용하여 성벽을 사방으로 둘러싸며 지켰다. 하나님의 평강도 병사가 성벽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밖으로부터 하나님을 평강을 뚫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근심을 전혀 없게 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모든 염려의 침범에서 벗어나도록 경계하고 위수하고 파수한다. 이 얼마나 기묘한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또 무슨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침입할 수 있겠는가? (워치만 니 전집 1집 제18권, 제3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 25-27쪽)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빌립보서 4:7**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 마태복음 5:44-45

44. ...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우리의 지각으로 사는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삶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가장 훌륭한 것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러나 천사장(후에 마귀가 되었다)이 죄를 범했고 천사들의 삼분의 일도 그를 따라 죄를 범하여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조금해 하셨는가, 조금해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결코 조금해 하지 않으셨다. 후에 하나님은 옛세 동안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한 쌍의 부부를 지어 땅에 거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또 범죄했다. 하나님은 조금해 하셨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조금해 하지 않으셨다. 천사가 넘어졌고 사람도 넘어졌지만 여전히 조금해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구주를 보내셨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오늘 범죄하면 하나님이 내일 곧 구주를 파견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해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때가 왔을 때 그 이들을 보내셨다(갈 4:4). 그분은 수천년을 기다리셨다. 그분은 결코 조금해 하시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해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부인한다 할 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천둥이나 번개를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평강 가운데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많은 역경을 만나게 될 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더욱더 많이 평강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감찰하게 한다면, 염려가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을까? 우리의 평강을 가져갈 그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당신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에게 아뢰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모든 평강이 파수병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모든 조급함과 어려움과 불편함 등을 밖에 가두어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평강은 참으로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다.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의 지킴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당신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압박이 너무나 무겁고 사방으로 길이 막혀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필요한 바를 하나님에게 아뢰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염려를 알지 못하는 것같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가 왜 이처럼 평안한가? 이것은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지킴이다.

7절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환경을 지키거나 당신의 환경을 평강 가운데 지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또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라」로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이나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同 26-27쪽)

## 제 3 부: GTA 권속 교통

### 교회 생활 안에서의 체험

####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한때, 나는 정말로 길이 없다고 여길만한 곤란한 일을 당하였다. 그때 나는 이 구절(빌 4:7)을 기억하고 어떤 광야로 기도하러 나갔다. 나는 열번도 넘게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속에는 평강이 없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은 사람에게 들려 주지만 할 뿐 실행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셨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너는 평강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곧 뛰어 일어나서 말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즉시 평안이 있게 되었다.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평강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강이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평안이 있으면 믿겠다.』 라고 말한다면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오늘 당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당신이 감당하는 것이 엄청난 것일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저를 당신의 손 안에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면 평안이 있게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는 그분의 약속이다. 당신이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위치만 니 전집 1집 제18권, 제3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27~28쪽)

#### 기도의 부담

1.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중국어 훈련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훈련집회에 참가하기를 기도 바랍니다.
2. 다가오는 IGNITE 특별집회(12월 27일-30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일 이 집회에 참석할 것과 숙박, 음식 준비, 교통편, 행사 도우미, 안전요원, 경제적 지원 등의 많은 실질적인 분야에 대하여 기도 바랍니다. 주께서 이 집회를 통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을 얻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소식 및 안내

#### 집회 안내

1. Hall 3 집회 시간

주일 집회 시간표:

10:00am – 10:30am

주의 만찬

10:30am – 11:00am

다과와 친교

11:00am – 12:00am

찬양, 찬송 및 메시지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Hall 1,2 & 3	Sunday, 10:00 AM	Hall 1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Hall 1	Saturday, 7:00 PM	Hall 2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Hall 2	Friday, 7:00 PM	Hall 3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Meeting	Hall 1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Hall 1 & 3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토요일, 오후 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
	Hall 2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Homepage	www.churchintoronto.org		Hom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